

지역 소식통

부안군의회, 임시회 개최

부안군의회(의장 문찬기)는 제314회 임시회를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는 제8대 후반기 원구성을 마치고 처음으로 열리는 임시회로 2020년 군정에 관한 보고와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한다.

22일부터 29일까지는 2020년도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청취하고 군민을 위한 올바른 군정 추진방향과 대안을 함께 제시해 나갈 계획이며 마지막 날인 30일에는 조례안 등을 최종 의결하고 이번 임시회를 마무리한다.

문찬기 부안군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로 고통 받고 있는 군민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후반기 부안군의회는 군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면서 군민이 위임해 주신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조화를 위한 군민이 행복한 열린 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부안=김석진기자

고창군 직거래 장터 개장

고창군이 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하기 위해 오는 8월 3일부터 고창군농산물종합유통센터 주차장에서 '건고추 장터'와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를 개장한다.

매월 3일과 8일 고창 5일 장날에 열리는 '건고추 장터'는 추석 전까지 새벽시장으로 운영한다. 매주 토요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를 정기적으로 열어 생산자 소득증대는 물론 고품질의 다양한 농수축산물을 시중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다.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는 군에서 판매부스 22개소와 그늘막 등 부대시설을 지원하고 소비자의 편의를 위한 고객 센터와 셔틀버스도 운행할 계획이다.

이달 27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 참여를 희망하는 농어가의 신청을 받고 있다.

/고창=김영식기자

www.jjmaeil.com

정읍 피향정 '연꽃 향연'

최치원이 거닐던 호남제일정, 이달 초부터 꽃망울 터뜨려

내달 중순까지 절정... 은은한 향 · 고운 자태 관광객 유혹

호남제일정(湖海第一亭)이라 불리는 정읍시 태인면 피향정(보물 제289호) 연꽃의 연꽃이 만발해 절정을 이루고 있다.

이달 초부터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한 연꽃은 어느새 연꽃을 온통 붉게 물들여 탐방객들을 유혹하고 있다.

특히, 녹색 잎과 연분홍 꽃봉오리들의 어우러짐이 눈을 즐겁게 하고 바

람 끝에 물어내는 은은한 향이 코끝을 간질이게 한다. 은은한 향과 아름다운 자태로 유명한 피향정 연꽃 개화 소식이 전해지면서 사진작가들을 비롯한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시는 피향정 연꽃은 이번 주부터 내달 중순까지 절정을 이룰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연꽃의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아름



정읍시 태인면 피향정 연꽃의 연꽃이 이달 초부터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해 어느새 연꽃을 온통 붉게 물들여 탐방객들을 유혹하고 있다.

다운 한옥 정자와 자연경관이 어우러진 피향정 연꽃 자태는 전국 최고다.

연꽃은 진흙에서 자랐지만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깨끗한 속성으로 인해 예로부터 생명의 빛을 상징해왔다.

특히, 송나라 철학자 주돈이(周敦頤)가 "연꽃은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속이 비어도 곧으며 향기가 멀수록 더욱 맑기에 군자를 상징한다"라고 한 이후 연꽃은 '군자의 꽃'으로 알려져 왔다.

피향정은 예로부터 호남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자란 의미로 '호남제일정(湖海第一亭)'이라 일컬어진다.

원래 정자 앞뒤로 상연자와 하연자가 있어 아름다운 경치를 이루었으나 상연자는 1900년대 초 매워지고 현재는 하연지만 남아 있다.

연꽃에 연꽃이 피면 그 향기가 주변에 가득하게 퍼져 '피향정'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한다. 신라말 고운 최치원 선생이 태산군수로 재직할 때 이곳 연꽃기를 거닐며 풍월을 읊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피향정의 창건 연대는 확실하지 않지만 현재의 건물은 조선 숙종 때인 1716년 태인현감 유근이 다시 고쳐 지은 것이다.

시 관계자는 "맑은 분들이 오셔서 진흙 속에서도 은은한 향을 내뿜으며 고고한 자태를 자랑하는 연꽃의 아름다움을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은 최근 동학농민혁명을 배경으로 한 보드게임 '동학연대기'를 개발완료하고 지역 중·고등학교내 게임 보급을 진행하고 있다.

"보드게임으로 쉽게 배우는 동학"

고창군 '동학연대기' 게임 개발... 중·고생 흥미유발

고창군이 동학농민혁명을 배경으로 남녀노소 함께 즐기는 보드게임을 개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21일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동학농민혁명을 배경으로 한 보드게임 '동학연대기'를 개발완료하고 지역 중·고등학교내 게임 보급을 진행하고 있다.

학생들이 고창의 동학농민혁명을 부담 없이 이해할 수 있게 게임에 역사 내용을 적용해 만들었다. 체계적인 학습활동지와 교수자료집을 제작해 학교 현장에서 고창동학농민혁명을 쉽게 접할 수 있게 구축했다.

게임은 동학농민혁명 1차봉기 이야기를 바탕으로 기본 단계(무장기포 점령)와 고급 단계(전주성 점령)로 구성됐다. 각자 동학농민혁명의 주요인물들을 맡아 혁명과 관련된 인물과 장소 사건카드를 모아가는 게임이다.

예를 들어 인물카드에서 손화중, 장소카드에서 선운사비불, 사건카드에서 비기탈취를 모으면 된다. 게임이 모두 끝날 때까지, 연꽃카드를 가장 많이 모으거나,

가장 많은 수확물을 보유한 사람이 집강소의 집강이 되면서 우승자가 결정된다. 앞서 전남(20일) 오후 무장전고창영선중학교에서 진행된 보드게임 수업에는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동학농민혁명스토리텔러양성사업관계자 등이 참관했다.

군은 향후 보드게임 운영교사 양성사업을 통해 동학농민혁명 동학연대기 보드게임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고창군청 백재욱 문화예술과장은 "모두가 쉽게 즐기는 보드게임을 통해 동학농민혁명사에 고창이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알리고 앞으로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사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창군은 동학농민혁명의 최고 지도자 전봉준 장군의 출생지, 억압받고 학대받던 민초들이 마음을 함께 하여 보국오민을 생사의 맹세로 삼아 '무장포교군'을 선포하면서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연 동학농민혁명의 성지다.

/고창=김영식기자

부안군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법' 시행

다음달 5일부터 2년간 한시적

부안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4여년 만에 다음달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소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적용 범위는 지난 1996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 등에 적용된다. 적용대상지역으로는 읍·면지역 토지와 건물이다. 단, 소유권에 관해 소송중인 것은 제외된다.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읍·면장이 위촉한 5명이상 보증인(변호사나 법무사 1명 포함)의 확인을 받은 보증서를 첨부해 등기신청을 위해 필요한 확인서를 신청해야 하며, 신청서를 접수한 군은 보증서 발급취지와 사실관

계 등을 현지조사 후 2개월간 공고하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4촌이내 친척 등 이해관계인에게 공고사실을 통지한 후 이에 대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 한해 등기 신청할 수 있도록 확인서를 발급해 준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보증 절차가 상당 부분 강화돼 신청 전 꼼꼼히 따져 봐야 하고 특히 보증인 5명 중 전문가격을 가진 보증인(변호사 및 법무사)이 1명 이상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코로나 극복' 손 소독제 2500여 개 배부

정읍시는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기탁 성금으로 취약계층 등을 지원코자 손 소독제 2천5백여 개를 구매 배부한다.

이번 손 소독제 지원은 지난 4월 1만 개 지원 후 두 번째 지원이다. 시는 정읍시에 지정 기탁된 성금을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정읍시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배부해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해 손 소독제를 구입했다. 손 소독제는 지역 내 초, 중, 고등학교 722학급과 지역아동센터 30개소, 어린이집 59개소, 정읍애육원 등에

3개씩 전달해 정읍의 미래 주역인 아

이들이 건강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유진섭 시장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모두 어려운 시기에 기부에 동참해주신 시민과 기업, 기관 사회단체 등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개인위생관리와 착한 거리 두기 등을 준수해 코로나 19를 건강하게 이겨내기를 응원한다"고 전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잔결음

생기충전소 등 내달 착공

정읍시가 농어촌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농촌중심지를 경쟁력을 갖춘 농촌발전거점으로 육성해 주민들의 기초생활수준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에 선정돼 2018년 사업에 착수, 2019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을 마치고 2021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중이다. 4년간 총사업비 60억 원

을 투입하여 작은목욕탕과 체육시설, 동아리방 등 각종 복지시설을 갖춘 행복북마루관과 생기충전소(가칭)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내달 착공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그동안 행복북마루관을 건축할 대지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북면면민익날제전위원회(회장 강만수)를 중심으로 시의 부지 매입에 적극 협조해 현재 부지 매입 마무리 단계로 모범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면 관계자는 "진행중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협조해 경쟁력을 갖춘 농촌발전 거점지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